

잠재프로파일 분석(LPA)을 이용한 부모양육방식 유형과 삶의 목표와의 관계*

임정아** · 조아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방식 유형을 탐색하고 각 유형에 따라 삶의 목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 부모양육방식과 청소년의 삶의 목표 결정의 연관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2016년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자료 중 부모의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으로 구성된 부모양육방식에 대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고 각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삶의 목표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2016년도 KCYPS 패널 자료 중 20세인 후기청소년 1,881명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5개의 잠재계층을 확인하였다. 각 계층의 양육방식은 5개의 잠재계층으로 나타났다. 세부적 특성을 살펴보면 집단 중 애정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 '애정부족형', 간섭이 심하다고 나타난 집단은 '애정만족/과잉간섭형', 기대가 너무 과한 집단은 '애정만족/과잉기대형', 모든 양육방식이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 '일반형', 비밀관성이 가장높은 집단은 '애정만족/비밀관형'으로 명명하였다. 삶의 목표는 '원만한 관계', '올바른 도덕성', '새로운 도전', '안전과 여가', '부와 명성'의 5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부모양육방식 유형에 따른 삶의 목표 하위영역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계층별로 모든 삶의 목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이용하여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방식 유형을 제시하고, 각 계층별로 삶의 목표와의 연관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부모양육방식, 삶의 목표, 잠재프로파일 분석

* 본 연구는 2017년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발표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lja5171@hanmail.net

***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교신저자, choami@mju.ac.kr

I. 서 론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있어 최초의 교육자이며, 세상을 알아가게 하는 중요한 초석으로 자녀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력 아래 자녀들은 부모-자녀 관계를 통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학습하고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다수의 청소년들은 후기 청소년기 즉, 성인기로 접어들어도 여전히 부모의 경제적 영향력 하에서 크고 작은 지원 및 관여를 받고 있다. 이는 부모-자녀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가 후기 청소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며 자녀의 삶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우영지, 이기학, 2007; 이형화, 장형심, 2015). 따라서 부모양육방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부모양육방식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기, 청소년기, 후기청소년기 등 모든 발달단계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임혜림, 김서현, 정익중, 2014; 전관영, 김희화, 2016). 아동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이고 자율적일 때 자율성, 성취성, 안정성, 사회성 등 아동의 성격 특성 부분에서 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문경주, 오경자, 2002; 손보영, 김수정, 박지아, 김양희, 201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애정·수용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격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자율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안정, 인내력 발달에 큰 향을 미쳐 사회적응능력이 높다고 한다(공계순, 서인혜, 2016; 이승화, 2001). 또한, 후기청소년은 성인기로 접어들면서 이전의 학교환경과는 다른 환경을 접하며 심리적 불안감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부모의 양육방식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후기 청소년들은 심리적불안감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숙, 조한익, 2004).

또한,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목표추구를 위한 자율적 조절 또는 내재동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Deci, Eghrari, Patrick & Leone, 1994). 청소년들이 삶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실천해 나가는데 부모나 가까운 어른, 또래, 학교 그리고 다양한 외부 사건 등이 큰 영향을 미치지만(Salmela-Aro, 2009) 그중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신종호, 서은진, 이유경, 2011).

초기 성인기인 후기청소년기는 자신의 정체성, 능력, 소질, 가치 등을 반영하는 직업을 획득하고자 하는 성취지향목표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배우자를 찾아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거나 삶을 함께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하고자 하는 삶 지향 목표를 동시에 탐색하는 시기이다(Havinghurst, 1981). 이 시기는 개인이 지닌 삶의 가치에 따라 삶의 목표를 본격적으로 탐색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균형적인 목표설정을 이행하는 중요한 시기이다(Palfai, Ralston & Wrigh, 2011). 즉, 이전에는 학생으로서 주로 학업 영역에서 목표를 추구해왔다면, 대학에 입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한 뒤에는 학업 외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목표들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후기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나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양육태도와 성취목표 및 진로결정수준(이현숙, 조한익, 2004), 진로태도성숙(우영지, 이기학, 2007), 삶의 만족(이형화, 장형심, 2015)등 주로 진로 관련이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후기청소년기에 접어들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삶의 목표를 확고히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후기청소년기가 이전의 시기에 비해 부모의 영향력을 덜 받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부모양육행동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후기청소년들의 삶의 목표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중학교 1학년 7차년도 패널인 20세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양육방식을 포괄적인 변인으로 묶기보다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각 유형이 삶의 목표와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살펴봄으로써, 청소년기의 삶의 목표에 대해 중요한 부모양육방식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프로파일 분석에 의한 부모양육방식은 어떤 유형으로 구분되는가?

둘째, 삶의 목표의 하위요인은 어떤 요인으로 구분되는가?

셋째, 잠재프로파일 분석에 따라 분류된 부모양육방식 유형은 삶의 목표의 하위요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양육방식

부모의 양육방식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사회의 변화, 개인적 요소 등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렇듯 다양한 양육방식에 따라 국내·외 여러 학자도 분류방법이 다양하고 용어상의 차이를 보인다.

Symonds(1949)가 부모양육태도를 수용-거부적, 지배-복종적의 두 차원으로 분류한 이후, 여러 학자가 양육태도 유형을 분류하고 체계화 하였다. 그 중 Schaefer(1965)는 신생아기부터 청년기 초기까지에 이르는 동안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연구하여 양육태도를 애정-적대, 자율-통제의 양극화된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아울러 Baumrind(1971)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권위주의적 유형, 권위 있는 유형, 허용-익애적 유형으로 분류하고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확고한 훈육과 부모로서의 애정이 있는 권위 있는 양육이라고 보았으며 애정은 낮으나 통제수준이 높은 권위적인 양육의 경우 자녀들과 가장 심한 갈등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자의 경우 양육태도의 유형을 성취-비성취, 개방-폐쇄, 친애-거부, 자율-타율의 4차원을 제시하여 아동의 성격발달에 부모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정원식, 1974). 또한, 양육방식을 애정, 자율, 성취, 합리성의 네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오성심, 이종승, 1983).

이렇듯 부모의 양육방식유형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구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연구를 참고하여 부모양육방식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지속해서 나타내는 긍정과 부정의 태도나 행동이며 이러한 부모의 태도와 행동들이 자녀에 의해 지각된 것을 부모양육방식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부모양육방식에 따라 자녀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많이 연구되어 오고 있다. 부모의 애정이나 올바른 관리 감독 등의 긍정적이고 애정 어린 양육방식은 자녀들이 정신건강에 정적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문경주, 오경자, 2002; 서경현, 2012).

부모의 양육에서 애정과 함께 일관성의 중요성도 강조되어야 한다. 부모가 비밀관

적으로 기분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거나 상황에 따라 다른 훈육을 한다면 자녀는 매번 다른 상황에 불안해하고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된다(Baumrind, 1967: 허묘연, 2004에서 재인용). 부모의 과잉간섭적인 양육방식도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녀의 개인적 생활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간섭하며 어른의 기준에 무조건 맞추도록 하는 것은 자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허묘연, 2004). 이러한 부모의 과잉간섭적 양육은 자녀의 행동을 제한하고 통제하므로 자녀가 새로운 상황을 탐색하고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제한한다(Rubin et al., 2009). 즉, 부모의 과잉간섭적 육아는 자녀에게 위축감을 느끼게 하며 자신감을 하락시키는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 자녀는 학업성취, 진학의 문제 등이 강조되는 시기로 부모의 높은 교육열이 자녀에게 과잉기대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부모의 양육방식 중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자녀가 매사에 부풀려진 이야기로 부모를 안심시키려고 하며 이러한 자녀들은 어느 것이든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일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기도 한다(소미강, 2008; 손석한 외, 2011; 신현균, 임지영, 2003). 이는 자녀들이 자라면서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에 이르는 동안 그들의 인생에 있어 목표를 설정 하는데 예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 진다.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부모의 애정 어린 관심과 이해는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심어주어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한다. 반면, 지나친 기대와 과보호, 과잉간섭 등은 자녀를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부모의 관심으로 보여 지는 감독과 애정 합리적 설명은 긍정적인 부모양육방식으로 보았고 비일관적이며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은 부정적인 양육방식으로 가정하였다.

2. 삶의 목표

삶의 목표는 개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Schmuck & Sheldon, 2001), 개인의 삶 전체에 걸친 발달을 고려하여 과거, 현재, 미래 시점을 통합한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 삶의 목표를 처음부터 한 번에 결정하고 계획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개인마다 각기 다른 목표를 정하고 때론 상황에 따라 그 목표도 변할 수 있기 때문

이다. 하지만 삶의 목표를 세우는 것은 자기개념과 정체성 수립과 같은 발달적 측면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녕감과 같은 정서적 경험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Headey, 2008). 삶의 목표를 계획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의미를 갖게 하여 심리적 건강 및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삶의 역경을 극복하는데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또한 삶의 목표는 청소년의 미래 삶의 내용과 방향,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Emmons, 1986).

청소년의 삶의 목표지향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이 높으며(윤선아, 2016), 목표가 뚜렷할수록 자아존중감, 친사회적 행동, 학업 성취도가 높고, 목표가 약할수록 우울증상, 반사회적 행동 및 대인관계 어려움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Damon et al., 2003). 삶의 목표는 위험상황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목표지향이 뚜렷한 청소년은 삶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며 목표추구의 동기로 인해 쉽게 좌절하지 않으며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김두환, 2014).

이러한 결과들은 건설적인 성인으로 성장하고, 이후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청소년기에 삶의 목표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3. 부모양육방식과 삶의 목표

부모의 양육방식과 태도는 청소년들이 자기 존재에 대한 의미와 가치관을 지니도록 하는데 있어 중요하고 나아가서는 삶의 목표나 목적의식을 만드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손보영, 김수정, 박지아, 김양희, 2012). 청소년의 삶의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가정, 학교, 또래 관계, 개인정서 등 많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부모의 양육방식이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등 모든 발달단계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공계순, 서인해, 2016; 김두환, 2014; 문병상, 2011).

부모의 애정·수용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삶의 목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이승화, 2001). 더불어 부모양육방식이 따뜻하고, 배려적(caring)이며 허용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친사회적 가치관 형성을 촉진시킴으로서 긍정적인 삶의 목표를 지향한다고 보았다(김성수, 윤미선 2013).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부모의 자율성 지지에 따라 내재적인 목표가 높아지며, 부모의 감독, 합리적인 설명, 방임과 학대가 삶의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윤선아, 2016).

이렇듯 부모의 양육방식과 청소년의 삶의 목표에 관한 연구에서는 부모양육 방식의 분류 형태는 긍정·부정으로 나뉘지만 양육방식이 삶의 목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된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이하 KCYPS) 대상자이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은 중학교 1학년의 7차년도 패넬에 해당하는 20세 청소년이다. 7차년도 총 조사대상자 2,351명 중 결측값 470명을 제외한 1,88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남학생 927명 49.3% 여학생 954명 50.73%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부모양육방식

KCYPS에서 2016년에 조사한 부모양육방식은 감독, 애정,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합리적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허묘연(2000)이 제작한 부모 양육태도 검사(총 43문항) 문항 중 부와 모 각각에 대한 질문을 부모에 대한 질문으로 수정한 후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부모양육방식 문항은 감독(3문항), 애정(4문항), 비밀관성(3문항), 과잉기대(4문항), 과잉간섭(4문항), 합리적 설명(3문항)으로 4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집단별 분석의 용이함을 위하여 해당변수들의 구성을 변경(1: 전혀 그렇지 않

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하였다. 변수의 문항을 분석해본 결과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은 긍정적 양육방식으로 설명 할 수 있고,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은 부정적 양육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감독 .813, 애정 .796, 합리적 설명 .800 비일관성 .755, 과잉기대 .677, 과잉간섭 .731 로 나타났다.

2) 삶의 목표

KCYPS에서 삶의 목표 문항은 미국 교육종단연구(NELS 2002)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청소년들이 여러 영역의 삶의 목표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는지 자기보고식 4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1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CYPS의 삶의 목표 총 1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집단별 분석의 용이함을 위하여 해당변수들의 수치가 증가함에 따라 삶의 목표수준이 높도록 코딩(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하였다.

15개 문항을 요인분석 한 결과 삶의 목표를 ‘원만한 관계’, ‘올바른 도덕성’, ‘새로운 도전’, ‘안전과 여가’, ‘부와 명성’의 다섯 가지 하위목표로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원만한 관계 .824, 올바른 도덕성 .688, 새로운 도전 .614, 안전과 여가 .654, 부와 명성 .609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KCYPS의 중학교 1학년 7차 패널을 활용하여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방식 유형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측정변수가 예, 아니오와 같은 이분형 변수일 때에는 잠재집단 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측정변수가 연속형 변수일 때에는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사용한다(Schmiege et al., 2012).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잠재되어 있는 여러 집단을 확인하고, 차별적 영향요인을 찾아 서로 다른 개입방법의 계획이 가능하다(Huh et al., 2011: 이상균, 그레이스 정, 유조안, 2015에서 재인용). 이러한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연속형 관찰변인들의 다변량 분포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 특성에 따라 복수의 하위계층으로 분류하지만, 잠재집단

의 수를 미리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집단의 수를 늘려가면서 자료에 가장 부합하는 집단의 수를 결정한다(신혜숙, 2015).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다음의 네 가지 기준이 있다.

첫째, 정보-기반 적합도 지수인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on), ABIC (Sample-size Adjusted BIC)이다. IC(Information Criteria)는 정보지수가 낮을수록 적합도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둘째, Entropy는 추정된 모형이 계층군의 확률을 바탕으로 모형의 평균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각 계층이 분명하게 분류되었는지 모형의 비교와 평가를 위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Crosby et al., 2009). Entropy값은 0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분류가 정확함을 의미한다.

셋째, 잠재계층 수의 증가에 따라 모형을 비교하는 LMR L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BLRT(Parametric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을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LMR은 잠재계층모형을 잠재계층의 수(k)와 이보다 하나 적은 잠재계층의 수(k-1) 사이의 비교로 다른 계층 수 모형의 적합도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때 p값이 유의하면 k잠재계층모형이 k-1잠재계층모형보다 적합함을 의미한다(Lo, Mendell & Rubin, 2001). 즉, BLRT는 k-1계층 모형이 k의 지지 또는 k-1의 기각여부를 결정하는 p값이 $p < .05$ 일 때 k(대립가설)를 지지한다(Nylund, Asparouhov & Muthen, 2007).

넷째, 도출된 각 잠재계층의 비율을 통해 표본 대비 계층의 최소비율을 확인하여 잠재계층 분류율을 적용한다. 표본크기와 대비하여 계층의 최소 비율은 선행연구마다 비교 가능한 최소 비율 기준이 다른데 Jung과 Wickrama(2008)는 모든 계층이 표본 수의 최소 5% 이상을 기준으로 보았고, Hill 등(2000)과 Nooner(2010)는 표본 수의 1% 이상이면 계층별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았다(권재기, 2011에서 재인용).

자료 분석 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위해 통계 프로그램 M-plus를 사용하였다. 잠재계층의 수가 결정된 이후에는 각 집단의 유형에 따라 삶의 목표의 하위요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방식의 유형분류

1) 잠재계층 수 결정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방식의 잠재계층을 탐색하고자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2계층부터 시작하여 6계층까지 계층의 수를 증가시켜 모형을 검증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잠재계층의 수에 따른 적합도 지수

분류기준		잠재집단의 수				
		2	3	4	5	6
정보지수	AIC	23,666,240	19,251,048	19,053,439	18,891,174	18,985,804
	BIC	23,771,491	19,395,077	19,236,244	19,112,757	19,246,163
	ABIC	23,711,128	19,312,475	19,231,404	18,985,677	19,096,845
분류의질	Entropy	0.959	1.000	0.961	0.954	0.791
분류율 (%)	1	74,502	9,729	9,729	9,729	7,193
	2	25,498	64,753	64,753	6,486	9,729
	3		25,518	15,736	5,157	13,078
	4			9,782	64,753	37,751
	5				13,876	12,441
	6					19,810
Likelihood testing		계층1 VS 계층2	계층2 VS 계층3	계층3 VS 계층4	계층4 VS 계층5	계층5 VS 계층6
LMR		0.001	0.343	0.000	0.000	제시안됨
BLRT		0.000	0.000	0.000	0.000	제시안됨

* LMR과 BLRT는 p 값을 제시함

첫째, 정보지수에서의 잠재계층결정은 AIC, BIC, ABIC 지수가 증가하는 지점을 참고하였다. AIC, BIC, ABIC 지수는 잠재집단의 수가 많아질 때마다 지수는 점점 적은 값을 가질수록 더 적합하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잠재계층의 수가 2에서 5까지 증가함에 따라 지수의 값이 적어지지만 잠재계층의 수가 6인 경우 지수의 값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잠재계층의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는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은 완벽한 분류를 나타낸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Entropy는 잠재계층의 수가 6인 경우 가장 낮은 분류의 질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잠재계층 수의 증가에 따라 모형을 비교하는 LMR과 BLRT는 p값이 유의하면 k잠재계층모형이 k-1잠재계층모형보다 적합함을 의미한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계층2와 계층3의 비교에서 LMR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계층5와 계층6의 비교에서는 LMR과 BLRT의 p값은 제시되지 않았다.

넷째, 표본크기와 대비하여 계층의 최소비율은 선행연구마다 기준이 다른데 본 연구에서는 Jung과 Wickrama(2008)는 모든 계층이 표본 수의 5%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였다(권재기, 2011).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잠재계층 수 1에서 6까지 분류율을 살펴보았을 때 5% 미만의 분류율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보지수, 분류의 질, 모형비교검증, 계층별 분류확률을 고려할 때 최종 잠재계층 수는 다섯 개의 집단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2) 잠재계층 별 특성 분석

잠재계층의 적합도 수준에 의해 도출된 다섯 개의 잠재계층구성은 다음의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

부모양육방식에 따른 잠재계층 구성(n=1,881)

집단 구분	n (명)	비율 (%)	평균점수					
			감독 (2.92)	애정 (3.15)	합리적설명 (2.82)	비일관성 (2.43)	과잉기대 (2.72)	과잉간섭 (2.68)
1	183	9.7	2.481	1.929	2.071	2.437	2.617	2.612
2	122	6.5	3.223	4.000	3.421	1.414	3.002	3.618
3	97	5.2	3.283	4.000	3.417	1.389	2.669	1.416
4	1,218	64.8	2.869	3.000	2.759	2.456	2.686	2.666
5	261	13.9	3.155	4.000	3.141	3.231	2.829	2.827

분석대상 중 9.7%가 집단1에, 6.5%가 집단2에, 5.2%가 집단3에, 64.8%가 집단4에, 13.9%가 집단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1은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이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은 평균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애정은 집단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집단 2는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이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그중 애정은 4점대를 보이고 있다. 비일관성은 낮게 나왔으나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 과잉간섭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집단 3은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이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그중 애정은 4점대를 보이고 있다.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은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그 중 과잉기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집단 4는 모든 양육방식인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모두가 평균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집단 5는 모든 양육방식인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모두가 평균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애정은 4점대이고 특히 비일관성이 집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최종 확인된 잠재계층 다섯 개 집단의 유형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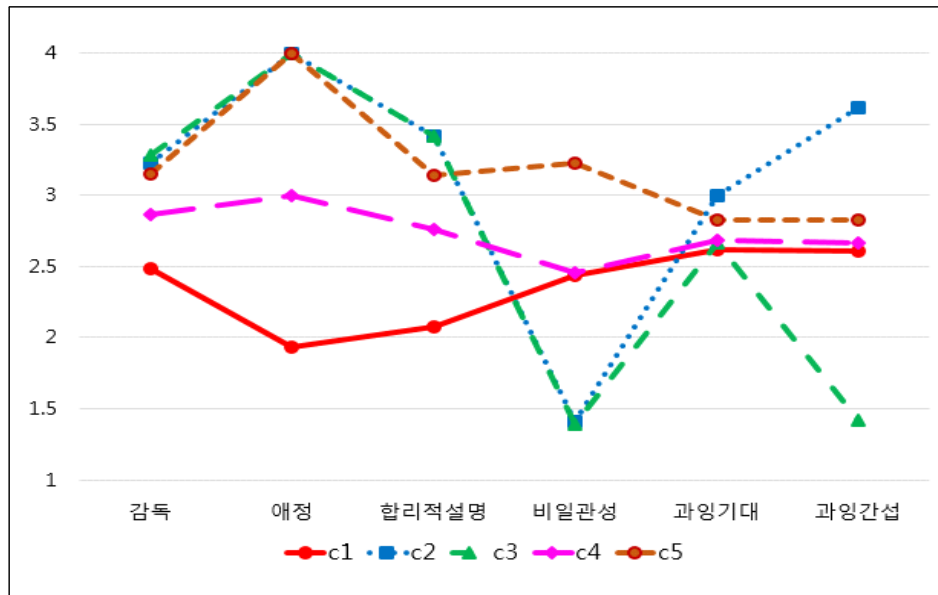


그림 1. 부모양육방식에 따른 잠재계층 유형

위 표와 그림의 구성을 바탕으로 하여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방식 유형의 집단별 명명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집단 1은 전체적으로 부모에게 애정과 관심을 못 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특히 애정이 가장 부족한 ‘애정부족형’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2는 부모에게 관심과 애정은 받고 있으나 기대와 간섭이 지나치다고 지각하는 ‘애정만족/과잉간섭형’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3은 관심과 애정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고 비밀관적 이지도 않으며 간섭도 덜하다고 지각하고 있으나 과잉기대를 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애정만족/과잉기대형’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4는 가장 많은 청소년이 이 집단에 포함되어 있으며 청소년이 지각하기에는 부모양육방식이 관심과 애정이 넘치지도 않고 기대와 간섭이 심하지도 않는 보편적인 수준인 ‘일반형’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5는 관심과 애정도 높게 지각하고 과잉기대와 간섭도 높게 지각하고 있으나 특히 비밀관성을 높게 지각하는 ‘애정만족/비밀관형’으로 명명하였다.

2. 삶의 목표의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쓰이는 삶의 목표 측정변수는 요인분석과정을 통하여 5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주성분 분석은 요인의 선형적인 결합을 가정하고 분산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해준다. 요인회전은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채택하였다. 직교회전방식은 요인 점수들 간의 상관관계인 다중공선성을 방지하고, 하나의 요인에 높게 적재되는 변인의 수를 줄여서 요인의 해석에 중점을 둔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 선택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은 1.0 이상, 요인 적재치는 0.4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삶의 목표 15개의 문항은 5개의 요인(원만한 관계, 올바른 도덕성, 새로운 도전, 안전과 여가, 부와 명성)으로 구분하였다.

삶의 목표 요인별 구분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삶의 목표 요인분석

회전된 성분행렬a						
		성분				
		1	2	3	4	5
원 만 한 관 계	좋은 친구들과 우정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799	.123	.134	.161	.028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797	.158	.111	.223	-.004
	부모님, 친척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776	.254	.067	.076	.036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737	.275	.050	.052	.009
올 바 른 도 덕 성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213	.738	.142	.070	-.006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233	.702	.157	.016	.080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하다.	.264	.613	-.079	.165	.150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070	.584	.295	.268	-.136

회전된 성분행렬 ^a						
		성분				
		1	2	3	4	5
새로운 도전	모험심과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119	.176	.812	-.014	.014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창조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048	.117	.792	.102	.000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230	.025	.468	.249	.386
안전과 여가	안전한 동네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153	.256	-.040	.769	.110
	많은 여가 시간을 갖고 자신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250	.079	.242	.725	-.052
부와 명성	부유하게 살고 값비싼 물건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158	-.105	.062	.181	.762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	.169	.214	-.021	-.188	.735

3. 부모양육방식 유형과 삶의 목표의 차이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방식 유형과 청소년의 삶의 목표(원만한 관계, 올바른 도덕성, 새로운 도전, 안전과 여가, 부와 명성) 간의 변인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을 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잠재계층 유형과 삶의 목표 간 차이

종속변수	잠재계층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검정 (Dunnnett T3)
원만한 관계	1집단	3.28	.565	51.316***	.000	3,2,5>4,1
	2집단	3.76	.448			
	3집단	3.77	.357			
	4집단	3.40	.472			
	5집단	3.69	.397			

종속변수	잠재계층	평균	표준편차	<i>F</i>	<i>p</i>	사후검정 (Dunnett T3)
올바른 도덕성	1집단	3.07	.477	27.038***	.000	2,3,5>4,1
	2집단	3.37	.481			
	3집단	3.36	.512			
	4집단	3.11	.393			
	5집단	3.31	.460			
새로운 도전	1집단	2.88	.577	24.870***	.000	2,3,5>4,1
	2집단	3.28	.544			
	3집단	3.18	.578			
	4집단	2.95	.437			
	5집단	3.14	.551			
안전과 여가	1집단	3.23	.526	24.386***	.000	2,3,5>4,1
	2집단	3.51	.479			
	3집단	3.50	.495			
	4집단	3.24	.452			
	5집단	3.45	.456			
부와 명성	1집단	2.48	.719	4.627**	.001	5>3,2
	2집단	2.30	.748			
	3집단	2.31	.792			
	4집단	2.45	.590			
	5집단	2.56	.713			
전체 삶의 목표	1집단	2.99	.380	41.249***	.000	2,5,3>4,1
	2집단	3.25	.329			
	3집단	3.22	.300			
	4집단	3.03	.292			
	5집단	3.23	.330			

*** $p < .001$, ** $p < .01$, * $p < .05$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방식 유형별로 삶의 목표 하위요인에 대한 인식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을 한 결과 부모양육방식 유형은 삶의 목표 모든 하위요인인 원만한 관계($F=51.316, p<.001$), 올바른 도덕성($F=27.038, p<.001$), 새로운 도전($F=24.870, p<.001$), 안전과 여가($F=24.386, p<.001$), 부와 명성($F=4.627,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삶의 목표($F=41.249, p<.001$)와 부모양육방식 유형 역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정(Dunnett T3)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삶의 목표 중 ‘원만한 관계’, ‘올바른 도덕성’, ‘새로운 도전’, ‘안전과 여가’는 부모양육방식 유형 중 애정만족/과잉간섭형, 애정만족/과잉기대형, 애정만족/비일관형이 애정부족형과 일반형보다 지향하는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삶의 목표 중 ‘부와 명성’은 애정만족/비일관형이 애정만족/과잉기대형과 애정만족/과잉간섭형보다 지향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삶의 목표와 부모양육방식 유형별 차이를 보았을 때 애정만족/과잉간섭형, 애정만족/과잉기대형, 애정만족/비일관형이 애정부족형과 일반형보다 지향하는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방식 유형에서 부모애정을 높게 지각하는 집단(애정만족/과잉간섭형, 애정만족/과잉기대형, 애정만족/비일관형)이 부모 관심과 애정이 부족하거나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애정부족형, 일반형)에 비해 삶의 목표를 지향하는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목표와 부모양육방식 유형간의 평균에 대한 차이는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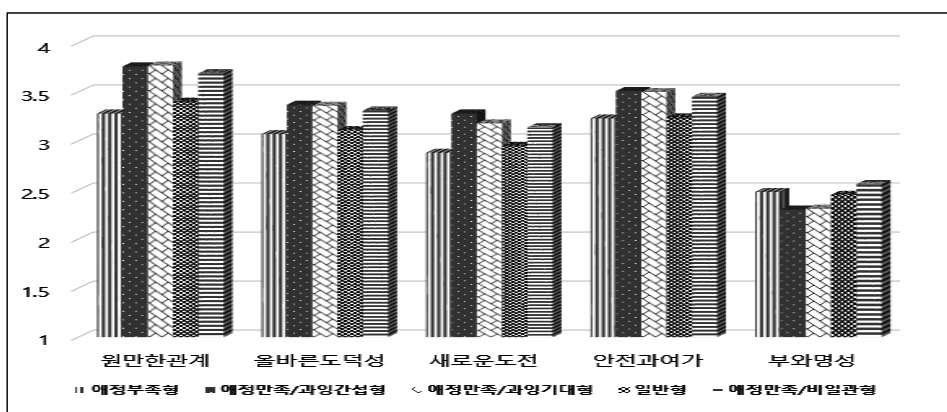


그림 2. 삶의 목표와 부모양육방식 유형에 따른 평균의 차이

V.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방식 유형을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분류하고, 각 계층이 삶의 목표의 하위변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후 청소년기의 삶의 목표에 대해 중요한 부모양육방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KCYPS 중학교 1학년 7차년도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양육방식을 반영하는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이라는 6개의 변인을 기준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한 결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방식 유형은 최종적으로 다섯 개의 유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유형 특성에 따라 ‘애정부족형’, ‘애정만족/과잉간섭형’, ‘애정만족/과잉기대형’, ‘일반형’, ‘애정만족/비밀관형’으로 명명하였다.

‘애정부족형’에 속한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못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애정만족/과잉간섭형’에 속한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관심과 애정을 받고 있으나 기대와 간섭이 심하며 그 중 부모가 과잉간섭이 심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애정만족/과잉기대형’은 부모가 청소년에게 과잉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형’은 부모의 관심과 애정, 기대와 간섭 등은 보통수준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애정만족/비밀관형’은 부모에게 관심과 애정을 받고 있으나 비밀관적이고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이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부모의 양육방식이 비밀관적일 경우가 많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방식 유형의 계층별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애정에 대한 부분은 대체로 높게 보이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부모에게 애정과 관심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삶의 목표 15문항을 요인분석을 통하여 5개 요인으로 구분 할 수 있었다. 각각의 하위요인에 따라 ‘원만한 관계’, ‘올바른 도덕성’, ‘새로운 도전’, ‘안전과 여가’, ‘부와 명성’으로 구분하였다. 삶의 목표와 부모양육방식 유형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보았을 때 하위요인 중 가장 높은 평균은 원만한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문화 특성상 부모의 역할이 중요시되며,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

요시 하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다(정태연, 2010).

셋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방식 유형이 청소년의 삶의 목표 형성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본 결과로는 부모양육방식 유형과 삶의 목표 모든 하위요인(원만한 관계, 올바른 도덕성, 새로운 도전, 안전과 여가, 부와 명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삶의 목표에서 부와명성을 제외한 모든 목표에서 부모양육방식 유형 중 애정만족/과잉간섭형, 애정만족/과잉기대형, 애정만족/비일관형이 애정부족형과 일반형보다 삶의 목표를 지향하는 수준이 높았다. 수준이 높은 세 계층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청소년들은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방식 유형이 긍정적일수록 청소년들의 삶의 목표는 높은 수준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양육유형 중 애정부족형과 일반형도 낮은 수준이지만 삶의 목표와 유의한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부모양육방식은 어떠한 유형이든지 청소년의 삶의 목표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 결과는 삶의 목표 설정이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Ericsson과 Charness(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종합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청소년들이 자기 삶의 목표를 이해하고 소지하는 것은 나머지 인생을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삶의 목적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가정이나 사회라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깊은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그 중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정원식, 1974; 허묘연, 2000)으로 이미 알려져 있고, 특히 긍정적인 부모 양육행동이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발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임혜림, 김서현, 정익중, 2014)에서 나타나 있듯이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삶의 목적 의식과는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부모의 올바른 양육방식 유형에 따라 삶의 목표가 적절하게 설정 된 청소년은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능력을 발휘할 것이고, 미래의 삶에 대한 그림 맞게 스스로 통제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공계순, 서인해 (2016). 고등학생의 생애목표 관련 요인 및 생애목표의 영향에 관한 연구. **복지상당교육연구**, 5(2), 1-26.
- 권재기 (2011).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의 발달양상과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 잠재계층 성장분석(LCGA), 다집단 성장혼합모형(GMM)을 이용한 종단연구. **한국 아동복지학**, 34, 96-127.
- 김두환 (2014). 21세기 한국 청소년들의 삶의 목적과 사회-개인과 사회의 상생. **사회 사상과 문화**, 30, 257-289.
- 김성수, 윤미선 (2013). SDT의 목표내용이론에 기반한 청소년용 생애목표 척도개발 및 타당화. **교육학연구**, 51(4), 87-117.
- 문경주,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29-43.
- 문병상 (2011). 미래지향적 목표의 검사도구 개발 및 타당화. **교육평가연구**, 24(3), 665-683.
- 소미강 (200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손보영, 김수정, 박지아, 김양희 (2012). 바람직한 부모 양육태도가 초기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3(1), 149-173.
- 손석한, 노경선, 허묘연, 정현옥, 이소희, 김세주 (2001). 청소년기 문제행동과 부모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40(4), 605-615.
- 신종호, 서은진, 이유경 (2011). 생애목표검사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5(2), 255-276.
- 신현균, 임지영 (2003). 한국판 청소년 분노 평가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22(2), 449-462.
- 신혜숙 (2015).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 공동체의식, 학교행복에 관한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영향 요인 탐색. **교육평가연구**, 28(1), 53-76.
- 오성심, 이종승 (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의 관계.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연구노트**, 11(1), 1-15.

- 우영지, 이기학 (2007).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를 매개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1023-1039.
- 이상균, 정그레이스, 유조안 (2015).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아동의 건강증진행위 유형화와 영향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35(2), 477-510.
- 이승화 (2001).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특성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교육연구**, 20, 85-104.
- 이현숙, 조한익 (2004).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취 목표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89-105.
- 이형화, 장형심 (2015).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학생 자녀의 목표추구지향성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종합연구**, 13(2), 25-49.
- 임혜림, 김서현, 정익중 (2014).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6(4), 1-27.
- 전란영, 김희화 (2016). 부모의 비일관적 양육 및 과잉간섭적 양육이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 시설환경**, 14(2), 57-67.
- 정원식 (1974). **교육환경론**. 서울: 교육출판부.
- 정태연 (2010). 한국사회의 집단주의적 성격에 대한 역사·문화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3), 53-76.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허묘연 (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 상담연구**, 12(2), 170-189.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2, 181-189.
- Crosby, R. D., Wonderlich, S. A., Engel, S. G., Simonich, H., Smyth, J., & Mitchell, J. E. (2009). Daily mood patterns and bulimic behaviors in the natural environmen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7, 181-188.
- Damon, W., Menon, J., & Bronk, K. C. (2003). The development of purpose during adolescence.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23(3), 119-128.

- Deci, E. L., Eghari, H., Patrick, B. C., & Leone, D. R. (1994). Facilitating internalizati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62, 119-142.
- Emmons, R. A. (1986). Personal strivings: An approach to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058-1068.
- Ericsson, K. S., & Charness, N. (1994). Expert performance: Its structure and acquisition. *American Psychologist*, 49, 725-747.
- Havinghurst, R. J. (1981). *The Life Cycle*. The modern American college.
- Headey, B. W. (2008). Life goals matter to happiness: A revision of set-point theory. *Social Indicators Research*, 86, 213-231.
- Lo, Y., Mendell, N., & Rubin, D.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 767-778.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e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4), 535-569.
- Palfai, T. P., Ralston, T. E., & Wright, L. L. (2011). Understanding university student drinking in the context of life goal pursuits: The mediational role of enhancement motiv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 169-174.
- Rubin, K. H., Coplan, R. J., & Bowker, J. C. (2009).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141-171.
- Salmela-Aro, K. (2009). Personal goals and well-being during critical life transitions: The four C's-Channelling, choice, co-agency and compensation.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14, 63-73.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2), 413-424.
- Schmuck, P., & Sheldon, K. M. (2001). *Life goals and well-being: Towards a positive psychology of human striving*. Gottingen: Hogrefe & Huber Publishers.
- Schmiege, S. J., Meek, P., Bryan, A. D., Petersen, H. (2012). Latent Variable Mixture Modeling: A Flexible Statistical Approach for Identifying and

Classifying Heterogeneity. *Nursing Research*, 61(3), 204-212.

Symonds, P. M.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ew York: Bureau of publication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U. S. Department of Education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02). *Nationa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Eighth grade questionnaire*. Chicago: A Social Science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Chicago.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rearing attitudes and life goals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LPA)

Lim, Jeongah* · Cho, Am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types of Parental Rearing Attitudes as perceived by adolescents and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the goals of each type,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Parental Rearing Attitudes and the determination of the life goals of the youth concerned. To this end, we analyzed the potential parental profile of parents' parental supervision, affection, rational explanations, inconsistency, over-expectation, and excessive interference among the data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in harvested from the KCYPS Survey of 2016. Analysis of this data demonstrat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life goal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ata of the 1881 youth who are 20 years old and younger among the KCYPS panel data of 2016, five potential classes were identified.

The analysis of the detailed characteristics of the Parental Rearing Attitudes of each class was named and characterized respectively as follows; the 'affection lacking type', the 'affection satisfying / excessive interfering type', 'affection satisfying / overpowering', 'general type', and the 'affection satisfaction / non-coher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analysis of postpartum dispersion and postpartum analysis between the type of Parental Rearing Attitudes and the subordinate factors of life,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all the goals of life. The results further demonstrate that it is important to suggest a practical method to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yle and perceived parenting style.

Key Words: parental rearing attitudes, life goals, latent profile analysis

투고일: 2017. 12. 11, 심사일: 2018. 1. 29, 심사완료일: 2018. 2. 13

* Myongji University, Dept. Of Youth Education and Leadership doctoral

** Myongji University, Dept. Of Youth Education and Leadership professor